

아담에서 노아까지 :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 5 장에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노아까지 아담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계보에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 기록되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성을 쌓고 목축, 악기, 농기구와 무기를 최초로 발명하고 사용한 사람일지라도 기록되지 못했다.

아담의 계보는 노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단숨에 달려간다. 기록된 내용도 단순하다. <자녀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보에 기록된 내용의 전부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로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만 기록되어 있다. 이 흐름에서 에녹은 예외적이다.

에녹,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빠른 속도로 출생과 죽음을 언급하며 다음 세대를 기록하던 족보의 속도가 에녹에서 잠시 멈추고 그의 삶을 소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아들이 아니다. 죽은 아벨 이후 태어난 셋(Seth)의 후손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창세기 5: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는 했어도 아직 까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없었다. 에녹이 처음이었다. 범죄와 타락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출현한 것이다. 에녹도 <자녀를 낳고> <살았더라>고 기록되었지만 그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에녹 이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엘리야 뿐이다.

이 땅에서 보여진 에녹의 마지막은 특별한 것이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다른 부모세대처럼 그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다. 성을 쌓지도 않았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만들어 이전과 이후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런 업적과 문화는 가인의 후손들이 더 훌륭하게 남겼다. 다른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면모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흔히 강함, 부유함,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에녹의 삶이 보여주는 결과물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얻은 것은 손에 질 수 있는 종류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는 부유하지도 리더가 되지도 않았다.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이었다. 에녹이 받은 상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주어졌다.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장수한 사람이다(구백육십구 세에 죽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아들이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므두셀라의 장수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계보의 기록대로 수명들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므두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시작된다. 조금 더 드라마틱 하게 말하자면, 므두셀라의 숨이 끊어졌을 때, 아직 까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홍수의 시작이었다.

에녹을 데려가시면서 홀로 남겨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그의 아들이 죽기 전에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다.